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혁명이후사회의영속성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혁명이후사회의영속성  
1890 년 10 월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1890 년 10 월

자주 논의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만약 내일 아나키스트 사회가 열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설혹 그것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해도, 최초의 혁명적 감수성과 각성 상태가 가시고 나면서 서서히 옛 모습이 다시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말이다.

아나키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압된 인민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모든 권위에 반항하는 것, 그리고 그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모든 힘을 힘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가 이를 확보할 때에 만들어진다. 우리는 특정한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받는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할 수도 록 규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즐겁게 할 자유를, 타인을 도움으로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즐겁게 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반란한 근거인 물적 자유를 빼앗고 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힘에 우리의 힘으로 구멍을 뚫을 자유를 가질 것이다. 혁명은 원리가 될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힘에 관한 문제다. 한 가정에서건, 한 작업장에서건, 전 세계에서건, 이상의 지지가 되고, 힘이 물리적 우월성이 된다면, 혁명은 사실로 실현할 수 있다. 실질적 사실의 영역에서, 지역적의지는 혁명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인민이 구체제를 수호하는 적대적 권력에 의한 금지나 복수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혁명이 정당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혁명들과 다른 것은, 우리 혁명의 결과는 공식적인 적군을 진압한 후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혁명은 자유로 의길에서 있는 모든 개인의 반란의 개별적 승리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가시적 보복들은 혁명에 영향 받은 개인과 집단의 혁명적 행동의 재개를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아나키 상태의 유지는 지금까지 흔들린 적 없는 조직적 저항을 마주해야 하는 아나키의 쟁취보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점진적이고 당장은 감지할 수 없는 구약 舊約의 재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구약들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있는 자유로부터 배제되고, 누군가가 사회로부터 최대한을 뽑아내고, 타인의 것들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을 인 지하지 못할 수 없다. 이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를 거부하고, 이자에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각자의 소유 중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약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할 힘 이 있다. 이들은 실력을 행사할 힘이다. 이들은 그 힘을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자유의 정신에 영감을 받은 반란군이었거나, 태어나서 부터 자유를 누리는 데에 익숙한 이들일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끼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이 문제 역시 아나키를 당장 유지하는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 해도, 이 구약이 오늘날 그러한 것처럼 일반적인 체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약은 이미 심각한 투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교육과 통신 설

비를바라볼때, 문제가여기까지논의한것의반만왔다해도굉장한일일것이다. 현존체계의건설은더이상유효하지않은이유들에근거한것이었다.

원시공산주의는모호한무지에가려져있었다. 그리고인구에비례한자원은현재보다더많았지만, 그들은후대의과학이가져온생산수단이없었기에덜생산적이었을뿐아니라, 오늘날의인민들보다더쉽게이용당하였다. 자연적조건은코뮌주의적이었지만, 일부는그들의자원을(전반적으로환대의분위기가있어그것을강제하는의식의시기를제외하고는) 타인과호혜적으로사용하기를거부했고, 그들이즐길권리를타인의손에내어주지않았으며, 심지어타인이그들의요구를모두충족할만큼의물자를제공하도록강제하기도했다.

이러한폭압에대한보호수단으로서부족적部族的의소유가최초로등장하여자연스러운반동이되었다. 그리고이소유로부터군대가등장했다. 군대체계는족장제를만들었고, 족장제에서국가와사적소유가등장했다. 그리고이로부터봉건제가나왔고이윤창출이나왔으며, 이로부터봉건영주와상인들이나왔으며, 이로부터산업주의가나왔고, 이모든것들이합쳐지고통합된것이현대자본주의라고하겠다. 이과정에서국가는그성격이군대를부리는것에서토지를소유하는것으로, 상업을감독하는것으로, 산업적착취로, 대중을현혹하는것으로그성격을바꾸어가면서도계속하여부름을훑치는것의동력이었다. 국가는강도질이기계가상이었던적이없다. 국가가행한다른것이있다면자유사상과언론, 행동을탄압한것뿐이다.

소유의전통은코뮌주의의본능을충분히말하지못했다. 인민들은다른부족의소유를강제로수용하는것이무언가잘못된것이라여겼다. 하지만코뮌주의의본능이약화한것은분명하다. 인민들은다른사람에대하여의무도, 관심이가지지않게되었다. 이원인은다음과같다. 다른부족들로부터고립된소수공격적부족들이약탈자들을보내어다른이들을기습하고, 비공격적부족들의생존수단을모두빼앗는경우가있었기에, 결국비공격적부족들마저외부인들의의심과질투로바라보게되었다. 그리고이기적이고, 마지막한톨까지재화를빼앗거나, 동료의불운에서이익을얻거나, 자기약탈품을요새로지키는자들이가장살아남을가능성이높았다. 그리고나머지사람들의경우, 요새의이웃에살면서요새건설자들(가장이기적이고, 질투심넘치며, 의심많은자들이가장먼저요새를건설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의본성과전통에순응한자들이살아남을가능성이더높았다.

그렇기에인민들이전리품을위해원시강도단에가입하도록설득하는것은쉬운일이었다. 하지만오늘날직접적인폭력적약탈에대한꿈을꾸는사람이얼마나적은지보라. 심지어처벌에대한두려움이나방위군에패배할우려가없는, 이를테면아프리카를보라. 약탈이라는개념은오늘날대중이보기에불쾌한것이다. 약탈의난이도는우리조상들이행할때보다쉬워졌지만, 가장억압된이조차생활의최저조건을갖추기쉬워졌다는점에서, 인민의물질문화와구성이달라졌다는점에서, 약탈은역겨운것이되었다.

오늘의조건은과거와매우다르기에, 이전사회의조건을만들어내었던역사적 발전이반복되리라기대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 만약사악이등장하여 새시대의폭압적체제가된다고해도, 그본성은현대에관측되는것과는완전히다른것일것이다. 상대적으로높아진구밀도, 거의전세계적인통신등은소유와통치가현재의위치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반복하는데에있어분명히대응불가능한 장애물이될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를향한열망이단지그지지자들사이에형제애와연대를불러일으킬뿐아니라, 정신적성향역시바꾼다는것은드러난사실이다. 그렇기에모든참된아나키스트들은다른사람을억압하거나, 타인의행동의자유를방해하는것에 거부감을느낀다. 그리고그렇기에, 그가이러한행동을하는것은, 젊은청년이이성에게매력을느끼지않거나, 어머니가자식을고문하며기쁨을느끼는것만큼이나불가능한일이다. 우리는이러한충동이진화의과정에서천박하게등장한이거적인간들보다더격렬하게각성하여, 이거적인간형이그러하였던것처럼, 유전적으로전파되어더욱견고하게존재할것이라믿는다.

그렇기에오늘날인류를억압하는기구들이온전히청산되었을때에이전의상태나그와유사하게해로운것이등장할것이라의심할이유는없다. 하지만혁명의성취가인간진보의새로운시대를열것이라믿을이유는충분하다. 그렇지않더라도, 승리하여자유를얻은자들과, 그후수세대의행복은, 투쟁하여얻을가치가충분하다. 법령따위로후대의조건을조정할수없다. 우리의후손들은그스스로알맞은조건을찾아야한다. 하지만만약우리각각이자유를갈망하고, 자유를쟁취하여낸다면, 후세의자유와행복을건설하는데에더이상동기를부여할수는없을것이다.